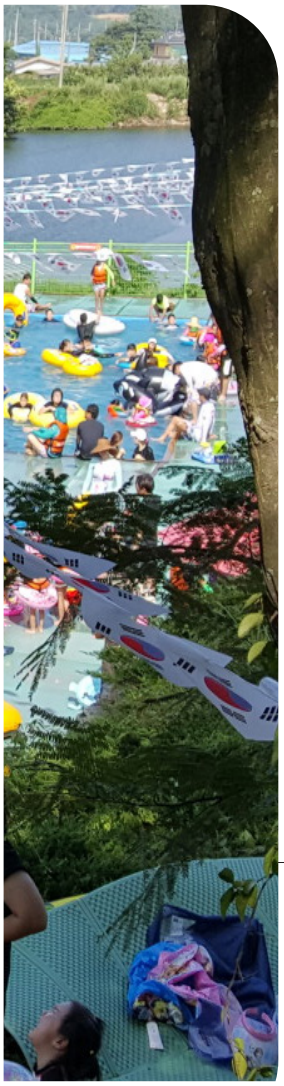
마을만들기
동상



위풍당당 풍요롭게 자립하는

해남군 북평면 동해마을

마을의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소득을 올리는 동해마을은
돌샘의 정기를 이어받아 위풍당당하게 자립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계승한 행사를 통해 마을의 역사를 잇고
귀농·귀촌인과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동해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동해길 97
인구수(가구)	107명(56가구)
마을자원	해남김치, 제철 농산물, 농산물 가공식품, 전통 혼례·장례, 너른마당 고사, 돌샘, 저수지, 물놀이 체험장 등

동해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마을전경

돌샘과 저수지에서 얻은 청정수로 배추를 키우고 맛깔스런 김치를 담그는 동해마을은 공동생산·공동판매 하는 해남김치와 더불어 감·밤호박·고구마 등의 제철 농산물과 두부·된장·연잎밥·돼지떡바 등의 농산물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마을사업을 6차 산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동해마을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ESG(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측정) 자치조직을 결성하고 분야별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정보화마을 공모에 선정되어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동해마을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을 빈집을 활용한 '민관합동 농촌빈집재생 프로젝트' 전국 1호 대상지로 선정되어 마을호텔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내 빈집 20호의 리모델링은 동해마을 자립 기반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전통 혼례·장례와 너른마당 고사 등의 무형 자원과 더불어 전통을 계승한 여러 행사를 진행하는 동해마을은 올해 해남미남味南축제에 향토 식재료와 향토음식 원형 보전가능성 등을 평가한 특산물 특별관을 개설하였습니다. 전통을 계승하여 미래를 도모하고, 자립하는 동해마을의 정신은 매년 더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마을은 다년간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 및 프로젝트를 통하여 마을기금 적립 및 마을연금 지급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문화복지활동 및 각종 마을축제·마을관광·어버이날 행사 등에 사용되어 마을주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 마을울력을 통한 돌샘가꾸기

▲ 김치판매브랜드 개발

▲ 다함께 정비하는 물놀이 체험장

향토자원 활용과 마을 자원 재생의 순환 모델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동해마을은 마을자원을 이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소득모델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농촌체험휴양마을·정보화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소득원으로는 마을의 자랑거리가 된 물놀이 체험장과 해남만의 차별화된 멋과 맛을 담은 해남미남味南축제 속 김치부스 등이 있습니다. 김치체험을 진행하고 김치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HAPPC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를 지역축제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마을사업 소득 증대를 이루었습니다.

▲ 해남미남축제 김치부스 운영

▲ 어르신 모심 행사(주민 문화복지 활동 지원)

청정 토양과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키운 동해마을의 경쟁력, 빛을 보다

행복마을 NEWS

HAPPC 자립화 시설 인증 받아
창의적인 농산물 가공품 개발
북평면 내 학교를 대상으로
장학사업 꾸준히

아름다운 마을경관과 청정자원을 자랑하는 동해마을은 2004년부터 각종 농촌마을 공모사업에 도전하며 마을 경쟁력을 키워왔다. 큰 틀에서는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자원을 재생하는 순환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

대표 상품인 해남김치 외에도 여러 농산물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한국 먹거리 브랜드로서 세계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다. 동해마을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인 농업경영을 통하여 공동생산·출하·가공 등을 이루며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확대하며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마을사업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 마을공동김장행사

"

주변 마을에도 퍼지는
동해마을 주민들의 웃음꽃

"

▲ 문화복지 난타교실

▲ 가족과 함께하는 김치담그기 체험

▲ 너른마당 고사(마을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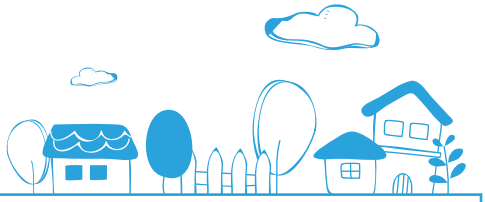
공동의 꿈이 되는 마을 경제 창조

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축제·관광·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마을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높아졌습니다. 마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연금 등의 형태로 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하여 북평면 내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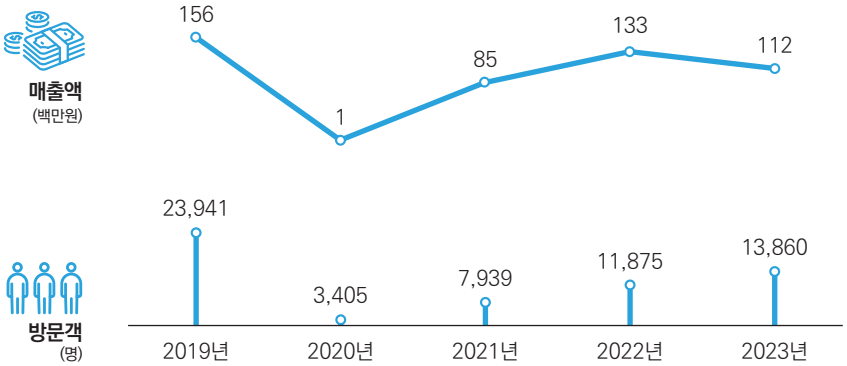
전통 계승 행사를 통한 소통교류 거점 마을 조성

500년 가까이 이어오다가 한국전쟁 이후 중단되었던 북평용줄다리기 축제는 2009년 재현된 후 지금까지 매년 5월 개최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로 마을의 청장년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매년 12월에는 마당너른집 김장축제가 20일간 진행됩니다. 두 축제 모두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동해리 대표 잔치로 마을주민 협력은 물론 체험객들과 주민이 어우러져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함께 즐깁니다. 마을주민들은 의기투합하여 자체적으로 행사 음식을 더하고, 퍼포먼스도 합니다. 도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하는 동시에 귀농·귀촌인들이 마을과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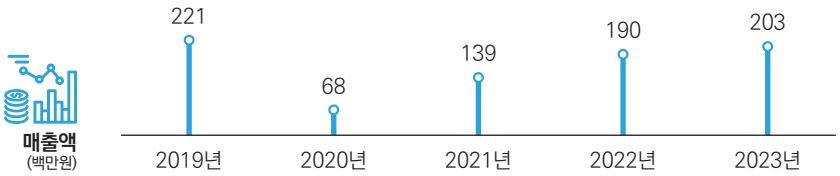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체험소득 및 방문객



총 소득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18.09 ~ 2019.03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사 업 비 40백만원
주관기관 해남군
- HAPPC 인증 등

2019.09 ~ 2020.12.30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사 업 비 134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물놀이 체험장 리모델링
-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